

영국 이혼율 50년래 최저

젊은층 파혼 급감 ... 부모 이혼 '정신적 충격' 회피 이유

영국 이혼율이 거의 50년 만에 최저로 나타났다.

통계청 ONS는 2018년 이혼은 90,871건으로 전년 대비 10.6% 줄었으며 또한 1971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주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통계조사원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결혼한 부부는 이혼 확률이 계속 줄어 들고 있음도 발견했다.

가정법전문변호사들은 부모 이혼을 경험한 자녀는 자신이 이혼 가정을 깨는(파혼하는) 트라우마를 최대한 피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7.5

남여 500쌍(1000명) 중 이혼 건수 2017년 8.4에서 줄어듬

건전하거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남여 500 쌍 중 이혼 건수는 7.5로 최근 50년 중 가장 낮았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가장 많았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또 "5년 전 결혼한 쌍은 1980년대 중반 혼인한 부부보다 이혼 확률이 딱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메리치 파운데이션 단체의 해리 벤슨 씨는 말했다.

런던 브리지 테러 책임공방
총선 이슈화 논란

» 4

총선서 보수당 압승 전망
유고브.더타임스 선거 예측 결과

» 9

권석하
유럽 귀족들의 사치 뒤집어보기

» 20

한글학교 글쓰기 대회
장원 글 소개

» 24

메시, 통산 6번째 발롱도르
역대 '최다 수상'

» 30

KIB보험
27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자동차 · 집/가재 · 의료 · 상업 보험 등
JEIB Group : Lloyd's broker & FCA 등록
www.kib.co.uk
☎ 020 7847 8630 info@kib.co.uk
1st Fl, 3 London Wall Buildings, London EC2M 5PD

푸른농원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 07894 330 988/020 8417 1123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낙원푸드
행사 · 파티 · 모임 음식,
김밥 · 도시락 전문 주문받습니다
☎ 020 8949 6474
07920 145 667
89 Kingston Road, New Malden KT3 3PA

K&P Motors Ltd.
MOT, 서비스, 에어컨가스, 수리
타이어
차 점검 · 정비
☎ 020 8549 3838
Unit 4, Hampden Rd Kingston KT1 3LG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워크비자/스폰서쉽
솔렙비자/사업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대한보험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시죠!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정직하고 성실한
보라여행
항공권 & 여행 전문
☎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한진택배
귀국 이사 화물,
소형 소포 전세계 배송
☎ 020 8867 0001
07504 861 771
e-mail admin@worldlinkexp.com

이민법 전문
Ashfield Solicitors
체류기간 경과, 비자거절,
항소기간, 불법체류 고민이세요?
이민법관련 최선의 해결책과
조언을 드리는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Specialist in Regularising overstayers,
any visa extensions, Human Rights
& immigration appeals
Tel: 020 7835 1297
info@ashfieldsolicitors.com
3rd Floor, 109 Gloucester Road,
South Kensington, London SW7 4SS
지하철역 Gloucester Rd on Piccadilly,
Circle & District Lines 역 건너편 도보 1분
Ashfield Solicitors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 SRA Number 599342

A3 MOTORS
튜닝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 · 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 07540 142 017
기술자 염관식

★★★★★ KOREAN RESTAURANT
강남
open 월요일 (점심휴무) 17~23
수요일 (점심휴무) 17~23
목요일 (점심휴무) 17~23
금요일 12~15 / 17~23
토·일요일 종일영업 12~23
화요일은 쉽니다

좋은고기 착한 정육점
더 트리스톤 TREE STONE
런던, 근교 고기 도매 주문 배달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
☎ 고기도매주문 07413 185 354
☎ 트리스톤 정육점 020 8942 5756

CLINIC
Beyond Satisfaction
케이한의원
TEL. 0208 123 1112
British Acupuncture Council Member
professional standards authority
• 전문 주자장
• 각종 사립보험허가
www.kclinicuk.org

Closing Down SALE
ALL STOCK MUST GO
UP TO 75% OFF!

NOW ON!
FACTORY OUTLET SHOP
Centre Court Shopping, Wimbledon
Villeroy & Boch
1748

유코쉬핑
Shipping Ltd.
해외이사 / 항공·해상 택배 / 상업화물
☎ 020 8890 9086 / 07837 203 341

영국비자센터
IMIN4U
www.IMIN4U.com
영국정부승인 No. F201601020
스폰서쉽/취업비자/영주권/
시민권/사업비자/
솔렙/배우자 비자/학생비자/
info@imin4u.com
020 3371 1033, 07886 665 921

재영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11월 22일(금) 대사관에서 있었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주영한국교육원(원장 김수경)이 영국 전역 한글학교에서 "친구", "계절", "내가 자라서 한국을 위해 하고 싶은 일", "내가 만일 한국을 알리는 유튜버가 된다면"을 주제로 실시해 학교별 우수작 115편을 선정 후 60편의 최종 수상작을 뽑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입상 학생 49명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부모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기사 제공·주영한국교육원)



옛날 친구

영국북동부 한글학교 초5 이현우

초등부
장원



나는 이현우다. 오늘은 나의 옛날 친구를 보러 가는 날이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어색할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택시를 부른 다음에 지갑이랑 잠바를 챙겼다. 지금은 31°C지만 집에 올 때는 밤 12:00 일 수도 있으니까. 택시가 왔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탔다. 나는 택시 기사님한테 주소를 알려주고 빨리 가라고 말했다. 한 20분 후 나는 나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는 우리가 예약한 방에 들어갔다. 내 친구는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앞에서 서 있는 친구를 보고 놀랐다. 내가 10년 전에 봤을 때랑 똑 같았다. 그 동그란 얼굴에 맨날 있었던 식은 땀, 그리고 눈썹을 가리는 밤하늘 처럼 깜깜한 그 머리카락. 마지막으로 그 파란색 눈동자가 그대로 있었다.

"친우야, 오랜만이야." 내가 대화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 그치?" 친구가 대답했다.

"일단 음식부터 주문을 할까?" 내가 말했다.

"응." 친구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음...나는 갈비를 먹을게. 너는?" 내가 물었다.

"소고기." 친구가 말했다.

우리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말고 또 다른 말은 없었다. 내가 한참 갈비를 먹는데 친구가 말하기 시작했다.

"너, 그때 기억나?"

"언제?" 나는 물었다.

"옛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많이는 안 나. 왜 물어봐?" 내가 물었다.

"그냥 기억나서.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우리가 만난 거는 기억나지? 그 때 니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잖아." 친구가 말했다. 웬지 친구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를 한 것 같았다.



"내가 그랬나?" 나는 영혼 없이 물었다.

"응.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였잖아. 우리는 일요일마다 공원에 모여서 얘기하고 놀았잖아." 친구가 말했다. 나는 친구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물어보려고 할 때 친구가 이야기를 또 시작했다.

"우리는 그 때 막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잘생기고 누가 제일 예쁜지 정하고, 삼성이 좋은지 아이폰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막 웃고..." 친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투로 끝냈다.

"그 때가 훨씬 더 좋았어. 지금처럼 어색하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얘기해버렸다. 또다시 조용해졌다. 친구는 뭘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친구가 얘기를 또 시작했다.

"너는 삼성이 좋아, 아이폰이 좋아?"

나는 조금 생각해 본 다음에 말했다.

"나는 삼성이지."

친우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에이, 아이폰이지. 아이폰은 배터리가 더 오래가. 너는 아이폰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삼성 봤어?"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옛날이랑 똑 같았다. 말하고 웃고 말하고 웃고...우리는 밤 7:00까지 놀고 우리 둘 다 우리집으로 와서 또 놀고 웃었다.

12:00가 되자 친구는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쉬웠지만 잘 가라고 했다. 친구가 가니까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양치질을 하고 잘 준비를 하자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써있었다.

'현우에게, 오늘 잘 놀았어. 다음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올래? 시원한 수박이랑 맥주 마시자. 못 오면 안 와도 돼. 친구가.'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갈 수 있다고.

나는 이현우다. 그리고 다음주 일요일에는 나의 제일 친한 친구를 보러 갈 거다. 이번에는 하나도 안 어색할 거다. 대신 마음이 진짜 설렌다.

한글학교 글쓰기 대회 입상자 명단

구분	학교	(유년부) 이름	학교	(초등부) 이름	학교	(중등부) 이름	학교	(다문화부) 이름
장원	런던	초3 이서진	영국북동부	초5 이현우	노팅험	중2 김다빈	강북런던	초6 마롱데리나
금상	런던	초3 엄하영	강북런던	초6 백서빈	강북런던	중2 송영인	맨체스터	초3 모니카 손
	맨체스터	초3 김도은	카디프	초5 장효인	런던	중3 노승아	영국북동부	초3 메건 슬론
은상	런던	초3 박혜진	버밍엄	초6 박재원	영국북동부	중2 이진우	런던	중3 박영웅
	영국북동부	초2 김유정	런던	초6 최연재	강북런던	중2 함다민	런던	중3 힙스 하나
동상	본머스	초2 정에덴	셰필드	초4 이가영	본머스	중1 이정연	스완지	초6 세라 데릭
	카디프	초1 이설	맨체스터	초6 이나림	브리젠드	중3 강지은	런던	초6 박영원
	맨체스터	초2 김지은	리즈	초4 전재혁	강북런던	중1 문성현	강북런던	중1 박문수
	런던	초3 최윤아	카디프	초6 이은	브리스톨	중2 최하람	버밍엄	초2 카일진 하리스
장려상	카디프	초3 장세인	리즈	초4 손해린	런던	중2 신민하	강북런던	중2 이마야
	노팅험	초2 김해찬	런던	초6 최유나	런던	중3 김하은(B)	맨체스터	초2 송이안
	맨체스터	초3 이창민	레딩	초6 성진모	셰필드	중3 이대영	런던	초4 이은혜
	싸우스햄튼	초2 정소울	셰필드	초6 임보민	런던	중3 류나현	영국북동부	초2 카와사키 유리
	영국북동부	초3 임예담	영국북동부	초4 신연우	케임브리지	중2 하나신글리스	런던	초4 류 프레야
	버밍엄	초2 류솔지	옥스퍼드	초5 박주하	코벤트리	중1 김윤서	레딩	초2 김단열

계절을 바꾸는 수정 구슬

런던한국학교 초3 이서진

유년부
장원



비가 온다. 너무나 많이 와서 나가기도 못하고 집안에 처박혀 있다. 나는 말한다.

"가을이 아닌 여름이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온 세상이 빛난다. 나는 눈을 가린다. 눈을 떠 보니 여름이 되어 있고 나는 파라솔 밑에 누워 있었다. 친구 소피아가 있었다. 나는 소피아에게 물었다.

"방금 가을이었었는데...왜 우리는 여기 있는 걸까?"

소피아는 키득거리면서 말했다.

"너 잤구나! 뭘 소리하는 거야! 우린 저번 달부터 여름이 있었어!"

어!"

나는 갑자기 내가 한 말이 생각났다. 가을이 아닌 여름이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분명히 내 말을 들었을 거야.'

나는 집으로 뛰어갔다. 침대 밑을 보고 종이들을 들어보았다. 드디어 무엇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위에 있는 물건들을 조심히 들어 옮겼다.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수정 구슬이 있었다. 나는 일단 구슬을 숨기고 나가서 놀았다. 시원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따뜻한 햇볕에 누워서 자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날 여름이 지겹고 더워졌다. 나는 수정 구슬을 찾았다. 나는 수정 구슬에게 말했다.

"더운 여름이 아닌 겨울이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파란 빛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비쳤다. 나는 눈을 감았고 다시 떠 본 사이에 평평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다. 나는 나가서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군고구마와 감자를 먹고, 발자국 숨바꼭질을 했다.

그러다 감기에 걸리고 추워서 다시 구슬을 찾았다. 이번에는 봄이 되도록 해 주었다. 벚꽃 축제도 가고, 예쁜 꽃도 봤다. 그러다 지겨워서 나는 생각했다.

'가을로도 다시 가봐야겠다.' 나는 마지막으로 구슬을 찾아 말했다.

"시작했던 곳으로, 가을로 데려다줘!"

그러자 세상이 돌아왔다. 나는 어지럽고 멀미가 났다.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진! 너 학교 지각해!"

나는 눈을 떴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모두 꿈이었다. 엄마가 깨우지만 않았으면... 내용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 갔다. 갔다 온 다음에 방을 뒤져봤다. 그러다 수정 구슬을 찾았다! 이제부터 진짜 꿈이 아닌 모험이 시작되겠네!



나의 무지개 친구

노팅햄 한글학교 중2 김다빈

여자애들이 모여있었다. 다들 머리가 짧았다. 그 중에는 빨갛게 머리를 물들인 애들도 있었다. 오늘도 이 여자애들은 무지개가 박혀 있는 악세사리나 가방 또는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서로를 쳐다보며 뭐가 좋은지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며 '왜 학교에 와서까지 저렇게 자랑하며 모여다녀야 하는 거지?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고 있을 때, 우연히 앞에 지나가는 같은 물리반 남자애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야! 야! 재네들 동성연애 하는 애들이지?"

"맞아, 맞아! 아, 너 그거 알아? 우리 물리반에도 그런 여자애 하나 있어!"

"진짜? 누구?"

"반에 가서 얘기해줄게!"

마침 물리교실로 가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반에도 그런 애가 있구나...'

교실에 들어가서 그 남자애들은 맨 뒷자리에 앉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앞자리에 앉았다. 그 때 릴리라는 여자애가 들어오자 그 남자애들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야! 재야 재! 그 동성연애자!"

"아, 진짜? 야, 릴리! 너 여자 좋아해? 우리 반에서 하나 골라봐!"

"그래, 너 6학년 때도 같은 반 여자애 좋아했ad며? 골라봐!"

일부러 릴리가 들릴만큼 크게 깔깔대며 떠들어대는 그 남자애들을 피해서 릴리는 마침 비어있던 내 옆자리에 얼른 앉았다. 얼굴이 붉어지고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의 릴리를 보며 나는 은근히 화가 났다. 그 남자애들은 계속 릴리에 대해 수군거리고, 릴리의 표정은 툭 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보였다. 생각해보면 릴리의 잘못도 없고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있는 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 그만해!' 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고 다들 자리에 앉아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업을 듣는 내내 옆에 있는 릴리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평상시에 조용하고 인사하면 잘 웃어주던 릴리가 동성연애자일거라는 생각도 못했었다. 내가 릴리라면 지금 어떤 기분

중등부
장원



일까? 릴리에게 "괜찮아?" 라고 적힌 쪽지를 건넸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은 채 릴리는 "응, 고마워." 라는 답장을 보냈다.

수업이 끝나고 남자애들을 피해 급하게 나가는 릴리를 따라나도 나갔다.

"릴리야! 나 스낵바 두 개 있는데 나랑 나눠먹을래?"

두 어깨가 처진 채 걸어가고 있던 릴리에게 용기 내어 물었다. 그렇게 우리는 쉬는 시간 동안 나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릴리는 어떻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학교에 있는 '동성연애자 클럽'이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지 얘기해주었다. 그 클럽이 없었다면 아마도 학교 다니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겉모습만 보고, 소문으로만 듣고 보고 지나가면서 그 여자애들에게 인상을 찌푸렸던 아까의 내가 떠올랐다. 소리만 안 질렀을 뿐이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여자애들을 판단하려고 했던 나 역시도, 그 남자애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날 이후, 나는 종종 릴리가 그 클럽의 여자애들과 모여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기 보다는 "안녕!" 하고 인사하며 밝게 웃으며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일곱 색깔의 무지개처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색을 가진 채 산다.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친구 릴리도 당당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며 놀림 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면 좋겠다.

나의 무지개 친구 릴리,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우리 모두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가자! 화이팅!

친구

강북런던 한국학교 초6 마롱데 리나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당신 주변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 고통을 느끼나요?
당신이 소외당할 때 당신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사나운 불길이 당신의 마음을 집어삼킬 때, 당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나요?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소외감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나요?

나는 어둠 속에서 걸고 있는 저러한 것들이 궁금해요.
나는 때때로 구름 속에 숨어 있는 태양을 바라봐요.
그리고 따뜻한 손은 어둠에서 날 꺼내주고 희망의 빛이 나에게 드리워요.
이렇게 나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란 존재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러니, 당신의 우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당신을 인도해 줄 우정이라는 빛을 기억하세요.

다문화부
장원



4개월(16주): £ 26 / 6개월(26주): £ 36 / 1년(52주): £ 57

재영한인 게시판

■ 런던브리지 테러사건 발생에 따른 주의 요망

2019.11.29.(금) 14:00 경 런던브리지에서 흉기와 가짜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일부 시민들이 중경상의 부상을 입고, 용의자 1명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7:00 현재 런던브리지, 런던브리지 지하철역 및 인근 지역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브리지 또는 인근지역에 계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우리국민이 있으시다면 즉시 영국 현지 경찰과 우리 대사관 및 국내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런던브리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안전여행과 관련하여 스마트폰에 '해외안전여행' 앱을 설치하시면, 테러·도난·교통사고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과 예방법, 각국 대사관·영사관 비상연락처, 현지 긴급구조 연락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연락처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유사시 큰 도움이 되오니 '해외안전여행' 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 경찰 긴급전화: 999 또는 101 ※ 영사 콜센터: +82-(0)2-3210-0404

※ 주영대사관: +44-(0)20-7227-5500(주간), +44-(0)7876-506-895(야간)

■ 뉴몰든 순회영사 안내

◆ 일시: 12월 18일(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장소: 레인즈파크 한인종합회관(108-110 Coombe Lane, SW20 0AY)

◆ 문의: 주영국대사관 영사과(020 7227 5500)

■ 주영한국문화원 《올해의 작가: 강정석》전 개최

- 영국 주요미술기관 '발틱 현대미술센터'와 협력, 한국작가 개인전 선보여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이정우/이하 문화원)은 2019년도 올해의 작가(Artist of the Year)로 강정석 작가를 선정하여 12월 10일(화)부터 2020년 2월 15일(토)까지 문화원에서 《2019년 올해의 작가: 강정석 - 게임 II: 인간의 모험, 자율주행차, 그리고 소인》 전시를 개최한다.

강정석은 발틱 현대미술센터에서 주최한 '발틱 아티스트 어워드 2019(Baltic Artists' Award 2019)'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발틱 현대미술센터에서 전시 기회를 제공 받은 강정석은 게임을 매체로 현대사회의 게임문화와 K-팝 등의 단상을 반영하여 주목을 받았다.

◆ 일시: 12월 10일(화)부터 2020년 2월 15일(토)까지 ◆ 장소: 주영한국문화원

◆ 문의: 주영국 한국문화원 020 7004 2606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나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

영국 영주권자편



영국 거주 11년차 영주권자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하려면 공관도 가야하고
절차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방법이 궁금하다면?!

재외선거

ova.nec.go.kr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회(2016 국선, 2017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 필요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런던 시내
쇼핑의 중심

센터포인트



30여 종류의 Home Made 반찬 및 김치
신선한 각종 채소와 해물탕, 보쌈 & 떡볶이세트
최상급 수원양념편갈비, 소·닭·돼지불고기, LA갈비
각종 냉동식품
그외 다양한 한국 & 일본식품

**우정
분식**

센터포인트 아랫층



짜뽕, 짜장,
떡볶이, 라면,
비빔밥, 한식 등등
드시고 가세요~~

센터포인트에는 Home Made 반찬 및 김치, 신선한 각종 채소와 해물탕, 보쌈 & 떡볶이세트, 최상급 수원양념편갈비, 소·닭·돼지불고기, LA갈비, 각종 냉동식품, 그외 다양한 한국 & 일본식품이 있습니다.

OPEN
연중무휴
월-일요일
밤 11시까지

www.cpfes.co.uk

Tel 020 7836 9860

020 7240 6147

73 New Oxford St, London WC1A 1DG

